



■ 연구원 소식

○ 12월 26일(月) :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전북지역 의병자료 번역 및 정리사업 학술대회 진행 (12월 21일)

: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전북지역 의병자료 번역 및 정리사업 학술대회”가 12월 21일,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진행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전북 지역 의병사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단행본으로 완성하기 위한 보완점과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나주 오씨 명곡공파 금열공 종중 일행 연구원 방문 (12월 21일)

: 전남 담양에 위치한 명옥헌(구가문화재 명승 58호)의 역사적 실체와 진실에 대한 연구사업을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해 나주 오씨 명곡공파 금열공종중 인사들이 방문하셨습니다. 향후 명옥헌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형거점연구소” 선정 (12월 21일)

: 지난 12월 1주차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한국고전번역원 권역별거점연구소 현장 실사”의 결과 발표가 12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연구원과 컨소시엄 기관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협동번역사업)가 “대형거점연구소” 로 선정되었다는 선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대형거점연구소 심사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형거점연구소 선정은 우리 연구원과 고전학연구소 뿐 아니라 지역에서 고전 국역 사업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축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부탁드립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이백(李白, 701-762) -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靑蓮)이다. 어려서부터 시서(時書)에 통하여 민산(岷山)에 숨어 종횡책사(縱橫策士)의 술(術)을 즐겼으며, 후일 조래산(徂徠山)에 살며, 술을 즐기며 6일(六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안사(安史)의 난에 양주(楊州) 절도대사의 막하에 있다가 모반(謀反)에 연좌되어 야랑(夜郎)지방으로 귀양갔다가 후일 사면되었고, 62세로 선주(宣州)에서 사망했다. 시인이 배출된 현종(玄宗) 시대에 있어서 두보(杜甫)와 더불어 시선의 일컬음을 받았다.

■ 작 품

山中問答(산중문답)

산중에서 묻고 답함

問汝何事棲碧山(문여하사서벽산)	나에게 무슨 생각으로 푸른산에 사느냐고 묻지만
笑而不答心自閑(소이부답심자한)	웃으며 대답 안해도 마음 절로 한가하니,
桃花流水渺然去(도화유수묘연거)	복숭아꽃 흐르는 물 따라 아득히 떠내려가
別有天地非人間(별유천지비인간)	이곳은 별천지 인간세상이 아니고 말고

■ 감 상

두보와 헤어진 뒤, 10년간 양 이백은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부근에 자리하고 있던 노(魯) 지방과 남쪽의 오(吳)와 월(越)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다. 낙담한 그의 심사는 그를 도교(道敎) 쪽에 기웃거리게 하였으며, 음주가무에 빠지게 하였다. 어느 때에는 산중에 묻혀 고독한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산중문답(山中問答)」에서는 은자로서의 그의 면모가 얼비치기도 한다.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 김천식(한고연 전임연구원/문학박사) [스물두번째 이야기]

- 이런 사진 절대 찍지 마시라! -



로마에 갔을 때의 일이다.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있는데, 고대 로마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나를 부른다. 왜 그러는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기념으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한다. 칼도 건네주고 포스에 대한 지도(?)도 해 준다. 먼 일이여?, 친절하기도 하네!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다음에 문제가. 돈을 내란다.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를 요구한다. 공짜인줄 알고 응한 것인데, 더군다나 내 사진기로 찍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진은 찍혔고 상황 종료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주었다. 사진 한 장에 이렇게 거금을 들인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다.

로마의 얼굴이라고 하는 콜로세움은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타원형인 콜로세움은 긴 쪽의 지름이 188m이고 둘레는 527m이며, 외벽의 높이가 49m가 되는 거대한 원형 건축물은 네로의 사망으로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가 서기 72년에 짓기 시작하여 5년 만에 완공하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군대의 충성과 귀족층의 협조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야하고 이를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네로 시절 로마 시에 화재가 났을 때 방화범으로 자신을 지목하는 시민들을 의혹의 불식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빵으로 회유하기도 하였는데, 황제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도 이를 잘 알았을 것이다. 원형 경기장을 짓는 명분을 "네로가 시민들로부터 빼앗은 땅을 되돌려 주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네로의 정원에도 거대한 공연장 건설을 서두른 것도 네로의 악행으로 떠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립된 콜로세움은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검투 시합장으로 사용되었고 야수의 먹이로 죄인들을 경기장 안에 집어넣기도 하였으며, 한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 맹수들을 풀어 놓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콜로세움 앞에 서면 명암이 교차 된다.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 최나라(한고연 회원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평창 동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주 경강선 KTX도 개통하여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평창, 강릉 등 영동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동 지역은 마음 먹고 다녀와야 할만큼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당일치기로는 다녀오기 어려워 묵고 와야만 했다. 2008년 대학의 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하던 시절, 1년에 한번 열리는 대학박물관협회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가 마침 강릉에서 열려 출장 겸 연가를 내서 좀 길게 다녀온 적이 있었다.

지금이야 경포호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였고, 경포호 주변에는 여러 정자들이 즐비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드나들었다던 선교장 바로 옆, 해운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민박집에 머물며 자전거를 장기 대여해 벚꽃이 만발한 경포 주변 여기 저기를 둘러 보았다.



<해운정(보물 제183호)>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제108호),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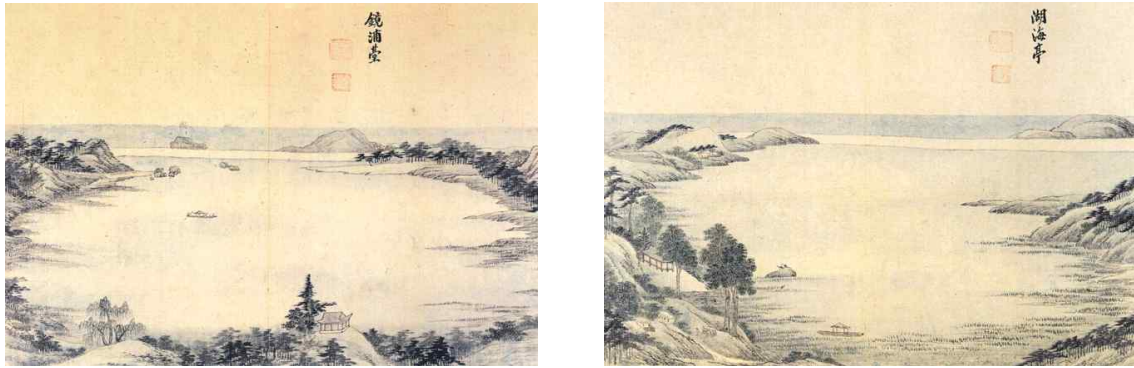
해운정에서 해변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제일 먼저 '경포대'와 만난다. 요즘 사람들은 경포대 해수욕장은 알아도 진짜 '경포대'가 어디있는지 잘 모른다. 살짝 언덕 위에 있는 경포대에 올라 내려다 보는 경포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아마 조선시대에는 더 그러했을 것이다. 경포대에 올라 지은 시가 여러 편 남아 있는데, 보름달이 흰히 뜬 날에 경포대에 올라 경포호를 바라다 보면 시가 절로 나올 것 같다.



<호해정(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2호)>

경포대에서 내려오면 동쪽으로 경포호 주변에 경호정, 상영정, 금란정, 방해정이 차례로 있고 언덕 뒤편에 호해정이 있다. 이 정자들을 돌아보면서 커다란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어떤 중년의 남

자분이랑 여러 번 마주쳤다. 아마 나와 마찬가지로 경포대 주변 정자를 돌아다니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금란정에서 내게 먼저 방해정이 어딘지 아느냐며 말을 거셨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때만 해도 방해정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나도 한참을 찾아 헤매다 다녀왔던 후라 경포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간 후 멀리 보이는 KT 송신탑 우측에 있다고 알려드렸다.



<정조의 명으로 그린 《금강사군첩》의 '경포대'와 '호해정'>
- 개인 소장, 한국데이터진흥원(출처) -

알고 보니, 그분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진준현 선생님이셨다. 나와 마찬가지로 대학박물관협회 학술발표회에 참석차 강릉에 오셨고 마침 경포대 주변 정자를 둘러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은 단원 김홍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 이 쪽 분야에서는 김홍도 박사로 불리는 분이었는데 전공 분야도 전혀 다르고 박물관 쪽 일을 시작한지도 얼마 안된 나는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단원 김홍도의 작품으로 알려진 《금강사군첩》에 '경포대'와 '호해정' 그림이 있는데, 진준현 선생님은 이 그림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만 정작 한번도 답사해본 적은 없어 이번에 꼭 답사해보고 싶었다고 하셨다.



<화재 전 석란정>



<경포호의 일몰>

금란정에서 그분은 방해정으로, 나는 석란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진준현 선생님은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을 하셨고 석란정은 화재로 붕괴되었다(이 사고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하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봄이 되면, 경강선 KTX를 타고 강릉에 가서 이번에는 자전거 대신 도보로 천천히 경포호를 걸으며 그 때 그 시절을 다시금 한번 떠올려보고 싶다.

■ 도농상생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마스크팩”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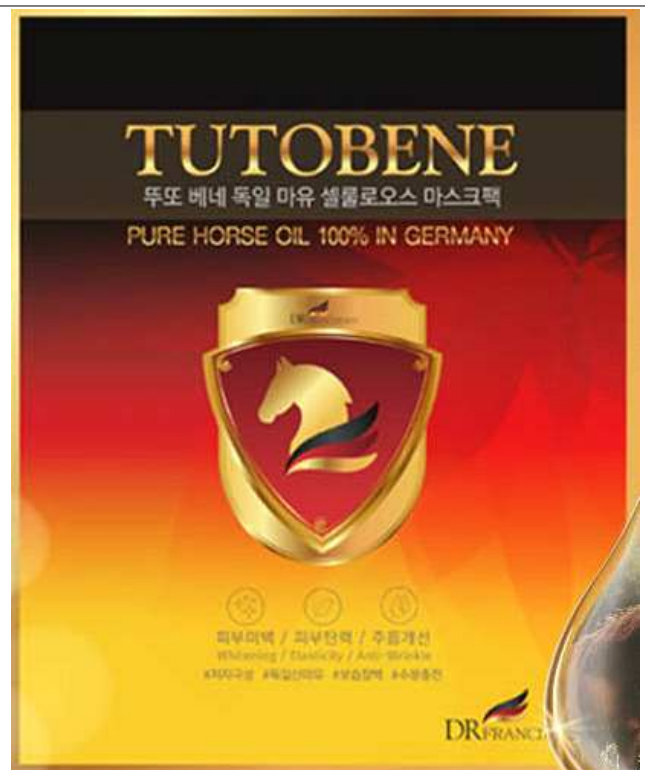
◎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25g * 5매 >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30g * 5매 >

- ◇ 시 중 가 : 4만 5천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스크팩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랭지 사과” 판매 안내

우리 연구원 박예환 회원이 전북 진안에서 키운 “고랭지 사과”입니다.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형성된 진안고원은 평균 해발 500m에 이르는 지형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큰 일교차에 따른 높은 당도와 단단한 육질을 자랑합니다. 우리 연구원 회원이 키운 농산물이니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연구원 회원들에게 소개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가 격 : 10kg 한 상자 30,000원(택배비 4,000원 별도)

* 주문방식 : 063-286-3005(사무국), 010-7137-6148(행정실장)